

제15회 목포시의회 제1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1) 참석의원:19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문택호,

김팔용, 이문길, 정응표, 김경희, 박찬규, 김채용,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의원

2) 불참의원:2명

김경현, 김길환 의원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하동현 시장, 안경호 부시장, 차영균 재무과장, 윤주현 사회과장, 박연태 산업과장, 남기인 건설과장, 양회경 공보계장

4. 의사일정표 :

1) 보고사항 :

- (1) 제14회 임시의회 회의록
- (2) 무허가 잡부금 징수의 건
- (3) 삼학도 제방공사 추진상황 중간보고
- (4) 난민, 궁민 실태조사 실시 결과 보고

1) 부의안건 :

- (1) 제2회 시정감사 실시의 건
- (2)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각종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

5. 개회선언 : 유정두 의장(오전 10시 30분)

- 1) 개회식
- 2) 개회사
- 3) 국민의례
- 4) 의장인사
- 5) 폐 회 사

◇의장 유 정 두

- 의장 일정에 따라 회의록 낭독 하겠음

◇서기 박 찬 대

- 제14회 임시회의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에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음

◎ 무허가 잡부금 징수의 건

◇간사 조 운 용

- 영해동 및 양동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이 있었음(별지 첨부)

◎ 삼학도 제방공사 추진상황 중간보고의 건

◇간사 조 운 용

- 내무부 항만과장으로부터 발송한 서신을 낭독

◎ 난민 및 세궁민 실태 조사결과 보고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건은 비밀회의에서 토의기로 하겠음

6. 토의사항

◇김 남 진 의원

- 중심지와 변방동의 동정세 부과에 있어 공평치 않으며, 부과기준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현재 징수하기도 막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답변을 요함

◇총무과장 조 운 용

- 지방세 부과 등급을 참작해서 호단위로 부과했으며, 5등급을 동일하게 한 등급으로 하였음

◇임 일 남 의원

- 목포시를 운영하는 호별세가 동정세 보다 더 많으며, 대다수의 근로대중 및 세공민에게 배가 되어 대다수의 세공민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정 응 표 의원

- 굶어 죽게되는 난민에게 난민배급을 주어 구호해 놓고 그들에게 낼수 없는 동정세를 부과한 것은 나변에 있는가?

◇총무과장 조 운 용

- 구호와 세금과는 별도 문제이다.
- 어제 구호를 받은 자각 오늘은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세금을 주민에게 부과 않을 수 없다.
- 만이 부과했지만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도 할 수 있다.

- 이하 동정세 부과에 대하여 의원측과 행정부와의 질의응답 약 20분간 있었음 (내용 생략)

◎ 동명동 어시장 문제

◇정 응 표 의원

- 어민과 선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수천의 동명동민들의 생활근거로 되어 있는 동명동 어시장 존속 문제에 있어서는 법규를 초월하고 지방 실정을 참작해서 종전대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며, 한편 객주측으로부터 진정서가 관계기관에 제출된 것 같은데 만일 해결이 안되면 의회에서 결의하여 3인의 대표를 선정해서 도당국 및 도의회, 어련에 교섭할 것을 긴급동의(제청)

◇진 복 춘 의원

- 동명동민을 살리자는 것은 좋으나 사설을 살리려고 하면 엄연히 존재한 어업조합이 깨뜨려지고 말 것이다.

◇김 삼 성 의원

- 1차 건의서를 어업조합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도당국에 진정하자 개의

◇김 영 완 의원

- 교섭위원을 보내기 전에 조합측 대표와 웃시장 대표를 의회에 출석케 하여 진상을 들어보자 재개의

◇의장 유 정 두

- 재개의부터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8명 중 가 10명으로 가결

◇총무과장 조 운 용

- 재차 동정세 부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내용 생략)

◇김 삼 성 의원

- 대다수의 시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정세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하여 재조정할 것을 동의(재청)

◇진 복 춘 의원

- 재조정하게 되면 대장도 일제히 고쳐야 하고 또한 인건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징수못할 난민에게는 동장에게 일임해서 적의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대로 할 것을 제의

◇시장 하 동 현

- 행정부에 일임하면 앞으로 무리한 강권이 발동되지 않을 것이요. 적의하게 할 것이니 그대로 맡겨 주기 바람

◇김 채 용 의원

- 이는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기히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있는 동정세를 재조정하게 되면 호별세 징수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이미 징수한 건은 내주어야 될 것이니 집행부에 일임해서 무리한 징수를 하지 말것이며, 신년도 부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건을 부쳐 그대로 승인할 것을 재개의

◎ 진복춘 의원 개의 철회할 것을 선언

◇의장 유 정 두

- 의원의 개의부터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8명 중 가 12, 부 3, 기 3, 가결

◇의장 유 정 두

- 동명동 어시장 문제에 대해서 양측 대표가 출석했으니 설명을 들어 보겠음

◇어업조합 이사 이 관 용

- 설명이 있었음

(설명내용, 법규에 의하여 폐지할 것을 주장)생략

◇동명동 어시장 대표 김 창 희

- 설명이 있었음

(설명내용, 법규를 초월하고 지방 실정을 참작하며, 어민과 선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역사있는 동시장을 존속케 할 것을 역설) 생략

◇이 복 주 의원

-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 대표 3인을 선정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자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박찬규 의원

- 교섭해 보아 결렬될 때는 제2단계로서 의회에서 다시 결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웃선창에서 어시장이 존속 되도록 도당국에 직접 교섭할 것을 동의에 참가(동의자 수락)

- 유정두 의장 내객으로 인하여 이소규 부의장과 사회 교체

◇부의장 이소규

-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8명 전원 가결
- 의장과 사회 교체

◇의장 유정두

- 조정위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람

◇이복주 의원

- 의장께 지명 선정하기 바람

◇의장 유정두

- 조정위원에 이소규 부의장, 명남철, 박찬규 의원을 지명

◎ 제2회 시정감사의 건

◇이소규 의원

- 사무감사는 자치법에 의하여 연 2회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되며, 각자 희망하는 반을 지원받아 편성할 것이며, 지장이 없는 한 계획표대로 실시할 것을 동의(재청)

◇이 재 흥 의원

- 사무의 간소화와 예산심의도 있으니 감사 기간을 3월 14일부터 동원 24일까지 11일간으로 단축시킬 것을 동의에 첨가(동의자 수락)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5명 전원 가결
- 각 감사반 편성은 여하함(지원에 의함)
- 제1반: 박찬규, 이재홍, 김영완, 오세일, 이복주
- 제2반: 이문길, 명남철, 김경현, 정응표, 김남진
- 제3반: 문택호, 김삼성, 진복춘, 김경희, 김채용
- 제4반: 김팔용, 이소규, 임일남, 김자홍, 김길환

◇의장 유 정 두

- 지금부터 비밀회의로 들어가겠음
- 비밀회의 내용생략, 약 1시간 30분간

◇이 복 주 의원

- 내 14일부터 시정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앞두고 회기를 금월 말일까지 연기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 재석15명 중 전원 가결

- 회의록 서명에 정응표, 임일남 의원을 지명

7. 산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후 6시 2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3월 7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정 응 표

” : 임 일 남

작성자 서기 천 세 봉

제15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오 전) (오전 11시 25분 개회 선언)

◇의장 유 정 두

- 지난14일부터 24일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주로 사무 감사 보고와 신년도 예산 심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반 실시하는 시정 감사에서 1년간의 우리 살림을 맡아보는 과거를 회고하여 그것을 거울삼아 신년도부터는 모든 마음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보고는 반장을 통하여 통할로 하든지 또는 각자 맡은 부분을 개별적으로 보고 하여도 좋습니다. 우리 21명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변인이므로 금반 사무 감사 결과를 일부 항간에서는 비밀리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들은 시의 살림을 맡아보는 역군이 되어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시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니 일반 시민은 오해 없기를 바라며, 물론 사람이란 신이 아닌 이상 틀리는 점도 있다고는 하나 우리의 생명 전체를 위하여서는 일부 수술도 하여야 할 것임에 그대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 그 다음에는 예산 심리인데 우리가 앞으로 1년간의 시살림을 하여 나가는데 가장 중대한 예산 심리이므로 신중히 검토 토의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기 박 찬 대

- 제15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낭독하고 의회 소식을 전하였음

◇김 채 용 의원

- 며칠전부터 일신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고 진복춘 의원은 형편상 출근 못함을 통고 하였음

◇의장 유 정 두

- 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소 규 의원

- 특별교섭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어업조합측과 객주측의 교섭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건의문 등 지참하고 낭독하기로 생략함)

- 결국 쌍방의 차이는 판매권 차이인데 객주측에서는 연고자의 업자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3자가 합의하여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 판매권까지는 절대로 조합에다가 못 주겠다는 것과 어업조합측에서는 2푼 5리라는 교부금 등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판매권을 달라고 하는데 객주측에서는 3푼까지 올려 준다고 합니다.

- 그러나 판매권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협의 판매를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자간에 교섭중이나 아직까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교섭하기에는 다소 날짜가 걸릴 것이오니 그대로 두면 무한정하므로 하등 의회에서 의결한 효과가 없으므로 금일부터 15일간에 걸쳐 교섭토록 하고 만일 교섭이 안된다고 하면 전반 의회 때 박찬규 의원의 말씀대로 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교섭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앞으로 15일간의 시일을 두어 가지고 교섭하되, 그대로 되지 않으면 상도하여 가지고 교섭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 남 진 의원

- 15일간을 교섭하자는 중에 유지회 등을 개최하여 교섭할 것을 동의에 첨가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부터 시정감사의 보고에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조 운 응

- 삼학도 매축공사와 판초자공장 설치에 관한 목포 출신의 중앙에서 활약

결과의 서류가 도착되었으므로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매축공사는 이기봉 외 40여명으로써 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에 이관하자는 것과 판초자공장이 목포에 설치된다는 것은 확정적이나 부지문제 등 곤란한바 부지 후보지 등 타합차 상부하도록 하라는 요지의 서신과 있음을 낭독하였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삼학도 매축문제와 판초자공장 등을 설치하기로 정부에서 지정하여 부지문제로써 시장에게 상부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어떠할까요?

-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대로 수시방관하고 일임할 것인가를 타합하여 주십시오.

◇이 문 길 의원

- 강선명씨가 실지로 목포에 와서 현지를 시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정된 것을 막연하게 시장님더러 상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것은 목포출신이 중앙에서 결정하였던 모양인데 정부에서는 목포시내에다가 주식체로서 만들 계획일 것입니다.

◇김 영 완 의원

- 방금 우리 의장으로부터 들은 판초자공장을 목포시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영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추진하여야 할 것임에 시의회에서 1명, 번영회에서 1명 등 2명이 상부하여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소 규 의원

- 방금 서류의 내용을 본 바에 구두로써 말만 하고 부지문제가 곤란하다 하여 막연히 상부하는 것 보다는 부지 등 후보지를 결정하여 상부할 것을 동의에 첨가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첨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첨가가 되지 않습니다.
- 목포에 판초공장 설치는 확실함에 부지 면적 등 조사하여 먼저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재 흥 의원

- 목포시를 위하여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4월 중에는 예산을 심리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 그러므로 삼학도 공사 문제로도 4월 중에는 상부하여서 추진하여야 될 것임에 이 기회에 상부하여서 삼학도 문제와 아울러서 추진함이 좋다고 생각되어 김영완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 소 규 의원

- 그 문제 추진에는 동의합니다.
- 그러나 평수 등을 서류로 하여서 10일간이면 충분히 회답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여야 하지 막연히 상부한다고 하더라도 1차 내왕한다면 수백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우리 의회가 앞으로 예산 심리 등등의 시일이 1주일 이상 걸릴 것인데 그간 부산을 연락하여 10일 내에 회답을 받아볼 수 있는 바 서류로써 조회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유 정 두

- 그럼 개의안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 가라고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 재석의원 19명 중 가 10표로써 가결되었습니다.
- 그러면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그 다음은 사무감사 보고를 듣기로 합시다.
- 그런데 순번은 제1반부터 하여 주시는데 반에서 누가 하든지 적당히 하여 주십시오.(사무감사 보고 시작 12시 4분)

◇이 재 흥 의원

- 내가 보는 제1반 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 서무계

대체적으로 서류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인사 관계인데 신원보증서 또는 이력서 등이 없고 명함 등으로 구비서류가 되어 있는데, 배후의 추천인은 본인이 부정 행위를 감행하였을 때에 변상문제 등이 그대로 될 것인가가 궁금하므로 앞으로 서류구비에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금반에 40명, 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수를 본다면 과거에 있던 직원의 수보다도 더 높는데 이러한 점은 이력서에다만 의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는 허위로써 어느 학교 1년을 나왔네, 또는 어느 학교 2년을 나왔네 하는 것을 신임한 것보다도 과거 어느 직장의 전력자이며, 전직 증명을 첨부한다든가 하여서 수 년 있던 직원들의 사기를 도와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청원은 현 도로부터 222명이 정원인데 현재 전부 합하여 225명으로써 3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채독려나 종지 관계로써 5명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아직도 3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숙직실 문제인데, 시청 숙직실을 가본다면 사람으로서는 그 자리에 이불을 덮고는 못 잘 현실이며, 숙직료에 대하여서도 50만원씩을 지불한다고는 하나 아직 지불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불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확실히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 관계인데, 시청 직원으로서 중앙의 정보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 공보계

대체적으로 서류구비 등은 양호하나 예산 부족으로 곤란에 처해 있으므로 추진력이 없습니다.

- 일반회계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지불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양호하오나 시내 모 관공서 계장급 연회비라 하여 70만원, 80만원이 지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여비 지불에 관한 건인데 모 직원이 광주여비가 얼마라

고 하여 지불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용무로, 며칠간의 여비라 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입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1일까지 차입 확정액이 6억3백40만환인데 현재 고지서에 의하여 받아 드릴 세금이 6억1천3백만환이므로 고지서와는 별 차이가 없으나, 실지로 지금까지 받아들인 돈은 1억 1천만환인데, 60%, 70%에 불과하므로 적자가 3억환이며, 2억2천만환이라는 은행의 빚과 1억2천만환이라는 일반회계의 호별세와 차이로써 커다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죽교 1구동

목포에서 가장 가난한 동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회계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사람은 확실하나 회계 사무에 능통치 못함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 문서 등 불비점이 있는데 이런점 시정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동 적자가 3백여만환에 달하였습니다.

- 회계 관계

장부 등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수리비라 하여 4백여만환을 할당하여 징수액 380만환을 다른 경비 등에 유용하고 있고 다른 사무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김 영 완 의원

- 수도특별회계 : 수도특별회계의 감사를 받아 1일에 끝낼 것을 10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끝냈는데 작년도에 비하여 금년에는 잘 되었을 줄로 믿었으나 의외로 불쾌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수도 개인별 대장 등이 없어 처음부터 장부를 들고 마지막까지 완전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금년 2월의 사이에 그 중에도 5, 6, 7, 8월에 시장의 허가도 없이 조사액보다 11,203,500환이란 돈을 날파했으며, 또 하나는 9월에도 좋지 못한 경향이 있으나 이 숫자를 총무과에서 발견하여 1,500만환이라는 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수도세를 감세하게 되면 응당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감세액이 5,969,300환이라는 것을 어떤 이유로써 단독적으로 감세하였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또한

현지에 가보면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물이 안나온다는 곳이 27개소나 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앞 목욕탕에서는 월액 40만원씩을 받는데 북교 목욕탕은 4만원만 징수하는 이유와 내가 보기에는 현재 직원으로서는 건설과 사무의 능률을 올리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 하나는 실지 징수하는 금액과 대장이 맞지 않다는 것인데 제일 유감된 점은 시장도 모르게, 과장도 모르게 하였다는 것 등으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재 흥 의원

-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오 세 일 의원

- 신분보증서 등을 앞으로는 구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회계관계에서 휘발유 등을 구입하고는 영수증이 없음은 유감입니다.
- 그리고 회계에 가보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징수계 :그리고 징수사무는 부정합니다.

앞으로 징수원은 여자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돈을 써도 큰 돈을 쓰지 못함에 여자를 사용토록 하여 주십시오.

- 시정계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 남교동:서류정비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 호남동 :전직원이 추진력 있으므로 양호합니다.

- 대성1구동 :사무 감사시에 백주에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하여 사무 감사 지장이 막심하였습니다.

◇이 복 주 의원

- 총무 시정계에는 각 동의 국민반 강화가 미진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 구역 변경에 있어서 거년 6월 17일에 서산동 일부를 온금동으로 편입하였다는 것인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 그 다음 국채소화가 부진하다는 것이며, 퇴거자, 행방불명분이라 하여 상당액이 미소화중인 보조권이 있는데 앞으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대체적으로 각 동에 서류가 구비되지 못했으므로 동일한 서류를 취급하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 식량특별회계:서류 등은 잘 되어 있으나 일반 회계에서 예산이 없다하여 어떤 비품 하나를 사더라도 식량특별회계에서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대단히 곤란하니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호남동 :타동에 비하여 동의 부채가 많으므로 억제하였습니다.

현재의 부채금이 7,580환이라는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공문서 등의 공람에 인이 없는데 이로 말미암아 동직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음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 대성동 :제일선에 있는 동행정이 사무 감사를 맡기 위하여 서류 등을 신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백주에 음주함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며, 이는 동장의 사무수완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무는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박 찬 규 의원

- 제1반 감사반의 한 사람으로서 동정특별회계를 감사한 결과 한심스럽습니다.

첫째, 각 동의 동정세 부과를 본다면 합계 5천 30만환인데 2월 말일 현재 수입이 65만환, 불과 1할1푼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3월 말까지 각 직원들의 부동 숫자로써 가족 수당이 1천15만환이 필요하며, 각 동의 소모품비가 합계 2천50만환으로 적어도 2천5만환이 필요한데 앞으로 징수 사무에 있어서 행정 당국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부과 사무인데 우리가 세금에 대하여서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의무로서는 다행히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의 실정을 본다면 대단히 부진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각종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신중성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소득 조사원의 상식이 부족하다 할까, 당국의 지시가 부족하다 할까 하여서 조사 사무에 막연합니다.

- 그 구체적인 사유로서는 한 사람 앞의 등급이 급전 규각적으로 10등이나 8등이나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의 등급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떠돌아 다닌다는 것은 천만 유감으로 생각하며, 행정 당국에 명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소득 조사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공정을 조사하여 주시기 부탁하며, 또한 어떤 사람은 세금 등에 관하여 2회의 이의 신청 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예는 목포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특히 행정 당국에 명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요즘 징수 사무는 기동대하고 징수하고 있으므로 징수의 내용은 조사하지 못하였습니까라는 징수부를 보면 성명이 없는 분, 또는 등급만 있는 분까지 각색이므로 징수부를 보면 우습습니다.

- 이래가지고야 우리 목포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심된 바 사무 당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1반 보고가 끝나자 답변으로 들어갔음

◇건설과장 남 기 인

-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 서류도 구비치 않고 시장, 과장의 결재도 없이 관리계장이 할 수 있는 줄로 인식하고 이러한 일을 한 것이므로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내가 취임 후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 수도료 부과 부당성에 대하여 어느 목욕탕에서는 40만환을 받고, 다른 곳은 4만환을 받고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 가장 좋은 목욕탕이 월액 20만환이고 기타는 15만환, 13만환, 8만환, 5만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금후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하겠습니다.

- 부정 미수금 수납에 관하여 제1차로 1천만원이란 부정금을 발견하여 회수중이며, 또한 현 직원으로서 사무 능률이 부족하다 함은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으므로 차후로는 이런 점을 시정 강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중부과 등의 불미스러운 점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료 카드에 있어서도 현재 카드철이 있는데 이것을 나쁘게 의심한다면 카드 1매를 바꿔 버리면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런 점도 차후 주의를 하며 시정할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부당성을 띤 유용분에 한하여서는 회수 변상하여 이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 감독인 내가 모든 것이 불철저한 책임이므로 차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주 의원

- 마침 김영완 의원이 안계시기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지금 건설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 정도로는 안될 것입니다.

- 그런 직원에 대해서 착복과 유용한 금액 등은 어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 기 인

- 그러므로 2월 15일부로 그런 직원 몇몇을 면직 처분을 하고 유용금 등에 있어서는 회수중에 있으며, 잘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전반 과장님이 아니므로 잘 모르실까는 모르나 선박료, 급수도 공사를 사전에 예산 승인도 없이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본다면 공사는 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한이 넘었어도 공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공사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며, 예산은 있는 것인가 알고자 합니다.

- 관리계장:수도에 2중과세가 있다는데 내가 보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을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장 하 동 현

- 의원 각위계 심심한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 금반 각부분에 걸친 사무감사 결과에 있어서 불비한 사항은 차후 전반적으로 장부 등을 정리하고 공금유용 사항에 있어서는 변상시킴과 동시에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서는 내가 취임후로는 정실인사 채용배치 등은 없습니다. 또한 채용자의 등급에 있어서도 신규 채용자의 이력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며, 수년간씩 근무한 직원보다도 등수가 높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금반 승급기가 다가오면 그때에 균형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실에 대하여는 상부로부터의 온돌을 폐지하고 다다미로 개조하라는 통첩에 의해서 개조할 것이고 침구 미비 등은 곧 수리를 하겠습니다.

- 청원중에서 중앙정보원이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여비 지불 등 장부에 상세 기입 등에 대하여서는 별도 지불 결의서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지불 장부에는 기입치 않으나 별도 결의서에는 기입되어 있습니다.

- 징수 사무에 있어서 본인 또한 상당한 두통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도 기동대를 조직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금후에는 계장 이하 기동대를 조직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 제1기 호별세가 순조로 징수되다가 중간에 화폐개혁으로 말미암아 중지 상태에 있다가 지금에야 조금씩 징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동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신년도부터는 청에서 우수한 직원으로 사무 지도반을 조직하여 각 동의 사무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백주에 음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본청직원과 나도 백주에 음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무안동의 청사비 지불에 대하여는 차후로 좌하여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수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징수대장 등을 정비할 것이며, 차후 조사하여 이런점 시정하여 유용분은 담당 직원에게 변상시키고 조사하여 신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과 사무에 있어서는 호순 조사와 소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인이 2회이상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검토 조사하여 공정을 기할 것입니다.

징수부과 등에 있어서는 우리시청 222명이라는 직원이 사무적으로 노력하여 시정할 것은 하고, 교양강습을 하여서 사무에 능률을 올리하고자 계획중입니다.

- 이번 감사 결과 이런 불미한 점이 나타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재 홍 의원

- 공무원으로서 사회단체에 간섭할 수 있는가?

◇시장 하 동 현

-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도 공무원은 불편부당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사회정당단체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오전 회의는 이대로 일반 감사를 끝나치고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 산회 선언하다.

(오후 1시 30분)

(오 후)

◇의장 유 정 두

-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2반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오후 3시)

◇정 응 표 의원

- 제2감사반원 정응표 의원으로부터 사회계, 노동계, 시립병원, 구호진료소, 시영식당, 금동배급소, 대안동배급소 이상 7개소의 감사 보고를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히 보고하였음(감사 내용은 보고서 참조)

◇김 남 진 의원

- 군경원호회 사무감사 보고서 별지 감사 보고서와 같음
(감사 내용은 보고서 참조) 대성병원, 만호동도 감사함

◇명 남 철 의원

- 산정 1구동, 죽교 3구동, 동명동 감사보고는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함(감사 내용은 보고서 참조)

◇정 응 표 의원

- 청소 사업장 실정을 본다면 현금 취급이 없으므로 인부들이 대단히 곤란한 모양인데 시에서 1일 30환씩 지불한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지불하여 줄 것인가?

또, 나는 청소사업장 바로 뒤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 좋은 말이 청소사업장에 가면 야위어진다는데 이런 원인은 사료 부족과 현금등을 지불치 못함이 원인일 것입니다.
- 현재 세금 외에 36종의 잡부금이 있는데 이러한 잡부금 등을 납부시키기 위해서라도 입금 등을 조속히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 다음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보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산업과장 박 연 태

- 특히 배급 사무에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불미한 점이 나타나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구호미에 관해서는 가마당 45kg로 되어 있는데 국산이 아니므로 검근을 못하였습니다. 원칙으로 외미에 대해서는 검근을 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전반 금동배급소에서 공가마를 3kg~4kg 되는 것을 그대로 달아 가마의 경중이 생기게 한 것입니다.
- 앞으로는 일일이 검근을 실시하여 부족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 배급소 부정미관계 :외미 421kg 부족량 사고미에 대하여는 금월말에는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정맥, 백미 등 부족분은 노무자 부식물대, 신체검사비로 입채분이 있습니다.

단기4284(1951)년 11월, 산업국장의 통첩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의 부식비로 실가리를 산정 2구동에서 수납한 것인데 그 후로 부락에다 배급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군경원호회 참사 김 종 대

- 이 지방의회가 사무 감사를 할 성질도 안되며, 상부에서 감사를 안 받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의 위신을 위하여 감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간 사무상의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 구호물자에 대해서는 시 사회과로부터 군경원호회로 넘어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작년 여름에 면대포대가 상부로부터 왔는데 그 이익금의 반은 상부로 주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사용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그것을 처분키 위한 유형무형의 경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천6백만환을 승인 얻고, 나머지로 면대 처분대금으로써 도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330배씩 직원 한사람 앞에 팔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몇몇 직원이 처분을 못하고 있어 도로 회수하여 금년말까지 처분할 계획이며, 작년 물가와 금년 물가가 전국저그로 달라 운영난에 봉착하였던 것입니다.

- 제가 취임한 이래 1천만환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 돈을 모씨에게 대여가 아니라 동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적은 대단히 좋지 못하며, 세금 등이 많이 부과돼 우리 부대 사업으로는 대단히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서 양철을 목포로 가져와 팔아 이익금이 작년 연말에 겨우 3백만 수입이었습니다.

- 작년에 이러한 사실로써 운영하였던 것이지 부정이나 계약체결이 부정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분께서는 특히 고려하여 주십시오.

◇이 소 규 의원

- 지금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부 사무비로 지불된다 하였는데, 군경원호회 직원의 급료, 기타 인건비 등은 지불치 않은 것입니까?

◇김 남 진 의원

- 금반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거꾸로 하는 모양입니다.
- 나도 신사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전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 면포대를 1인당 300매씩 주어서 팔도록 하는 그 대금이야 말로 확고부동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수습비로 썼다 함은 묵인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군경원호회 참사 김 종 대

- 감사 결과에 의하여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은 절대로 부정이 아니음을 여러 감사반끼우서 특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응 표 의원

- 공가마니를 사회과에서 주는 일이 있는데 서류상에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회계장부에 처분의 경로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온 지시에 의한다면 목포시분회 참사 명, 주사 1명, 서기 2명으로 공문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분회에서는 각 동의 군경원호회를 합하여 30여명을 불법 채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경비는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속에서 나오므로 이것은 어찌된 사실인지 알고자 합니다.

◇군경원호회 참사 김 종 대

- 이러한 사실은 현재 군경원호회원의 징수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여 징수 사무를 담당키 위하여 부득이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윤 주 현

- 난민·실태조사는 정당한 숫자 조사가 못되어 수배할 사람인지 실태에 맞지 않으므로 재조사를 실시중이며, 상이군인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군경원호회로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종전에는 동장, 반장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오면 수배한 현실이었던 것이 요즈음은 전표만 가지고 수배함에 곤란한 점

도 많이 있고, 또 물자 수배 등에 있어서도 전표만 꺼내주면 수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동의 구호위원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노동계 미성년 고용에 있어서 고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보건계에 있어서 접대부 등의 검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매월 검진을 실시하려고 일자를 정하여 시청으로 오도록 공문을 내며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반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직접 사회과에서 출장 검진코자 하였으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그만 말았던 것입니다.

- 보균은 무료로 치료하여 준다 하여도 오지를 않음에 대단히 곤란하여 월 2회정도는 실시하여야 할 것이으나 2회는 어렵고 월 1회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는 말 7마리와 트럭 1대와 오물의 청소를 하고 있다가 저번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아 말 구루마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그제서야 수선이 완료 되었으므로 앞으로 청소작업에 주력을 가하고자 합니다.

- 대성병원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보아서 전염병 환자 외에는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부분이 행려환자가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병원의 오씨란 이가 대단한 사람이고 성질이 좋아서, 행려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면 식사 등이 대단히 곤란한 모양인데, 대성병원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여서라도 환자의 식사를 시켜준 모양으로 남자나 여자나 거기를 희망하는 환자 등이 있으니 금후로는 될 수 있는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현재 청소 사업장에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2개월 동안이나 월급을 주지 않아서 대단히 곤란한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청소장 바로 뒤에서 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하루 30환씩 주는 것마저 안 주고 있으므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이라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윤 주 현

- 사회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심계원에서 사무 감사를 왔을 때에도 식량 등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실지 사정의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들 말은 이름이라도 다른 항목으로 하여 주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조 운 응

- 동정 기타 사무에 대하여서 신년도부터는 새로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제가 작년 11월 8일 취임 당초부터 동정강화를 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에 착수하려고 한 바 국채소화로 인하여 동정사무가 중간에 부패됨을 알고서는 회복과 일을 하고자 방대한 금액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던 중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 징수 부진과 또는 동정세 등을 징수하여 동에서 유용하고 있는 현실로써 본예산 통과를 그대로 실행 못함에는 죄송타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출납 폐쇄기까지에는 모든 것을 청소하고 명랑한 기분으로써 일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청소 사업장 관계에 있어서도 11월, 12월, 1월분을 주었는데 일부 직원들 중에는 불평을 말한 직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청소작업 인부를 주어야 한다 하여 지불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4월 30일까지는 지불하여 줄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무추진에 있어서도 더욱 가일층 노력과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성립 되었으므로 그대로 3반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3월 31일 오전 11시 35분)

◇김 삼 성 의원

- 사회과 농림계, 상공계, 공설시장, 북교동, 영해동, 용당동, 산정 2구동, 대성 2구동, 유달동, 온금동 시정감사 보고가 별지 보도서와 여히 보고하였음

◇진 복 춘 의원

- 3반 감사반으로서 김삼성 의원의 상세히 보고하였기로 별다른 보고 없음

니다마는 느낀 바 축산조합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내에서 1일 죽는 소가 보통 7, 8두 되는데 실지 도살장에 정식으로 수속을 밟고 잡는 업자는 1일에 2, 3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도살장은 시내, 전 세무서 불난 자리 어느 공장이 좋은 곳이 있으므로 거기다가 도살장을 설치하여 가지고 무한으로 잡는 돼지까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세입을 올릴 것 같고, 현재의 도살장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실지 거기까지 운반하려면 운반비가 다 먹음으로써 안가는 모양인데 이점 고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남교동 공설시장의 사용료를 더 받아가지고 중동시장을 확장시킴이 좋다고 생각되오며, 중동시장은 현재 개인들이 지어 놓은 건물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60환을 장수하고 있지만 그 이상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한 각 동에를 본다면 나병환자 비용이라 하여 상당액을 할당하여 놓고 있는데 이러한 돈은 징수할 것입니까? 어떠한 것인가 알고자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행정부의 답변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조 운 용

- 각 동의 실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해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채소화 독려시에 2,300만환을 소화키 위하여서 접대비로서 2,070만환이란 막대한 비용을 낸데 대하여서는 동장 이하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정세만 완납된다면 모든 동행정 사무에 대하여 명랑한 행정을 기할 것이므로 제가 전 책임을 지고 출납 폐쇄기까지는 모든 것을 환납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류 등 취급에 대하여도 완벽을 기할 계획입니다.

◇시장 하 동 현

- 계동에 대하여서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불비한 점 대단히 미안 합니다.

-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의 사무에 있어서 신변도부터는 청내 우수헌직원을 선발하여 각 동의 사무에 대하여 실지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양정계에 대하여 기술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이동에 심하여서 사무 취급에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취임한 후에는 전혀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양곡 배급에 있어서 낙미에 대하여서는 사료로써 경쟁입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 각 동에 대하여서는 사무적으로 통일을 시킬 계획입니다.

- 도살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서 원칙으로 법적으로 보아서 시내에다는 위생상 설치 못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살의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시장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지금 각 시로 연락중입니다.

- 조희 결과 우리 못포시가 염가이면 인상할 계획으로 조희중입니다.

◇이 소 규 의원

- 나병협회비에 대하여 며칠 전에 일본방송에서 들었는데 일본에는 나병환자가 5년전까지 걸어다니는 것을 조사하여 소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다고 하여 일본의 잘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병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요즈음 각 동을 본다면 거액의 돈을 시로 납부한 정도인데 이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 윤 주 현

- 나병협회비에 있어서 단기4285(1952)년도 할당액이 6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는 불과 5%밖에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하여 소록도 보내기 위해 작년 6월에 시내 600여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하였는데 50명 가량을 발견하여 도에 연락 하였던 바 작년 12월에 식량 문제로 15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하였는데 15명도 가능성이 없다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자들은 자기들한테 가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으므로 소록도로 보내게되더라도 목포에서 배를 태워 식량 등 기타 경비원, 경찰관 등의 비용을 담당하여 책임지고 목포에서 보내야 되므로 소록도까지 가는 경비의 염출 등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윈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현재 목포에 있는 환자는 곧 보

낼 계획입니다.

◇이 소 규 의원

- 현재 각 잡부금이 30여 종목이 있으나 매호당 천환을 50환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러면 그 다음 4반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임 일 남 의원

- 동동하양장, 양동, 죽교 5구동, 호적병무과 시정 감사 보고를 별지 보고서와 여함(내용 보고서 참조)

◇김 자 흥 의원

- 건설과 관리계, 도시계, 죽교 4구동 시정 감사 보고를 별지 보고서와 여히 보고하였음 (보고서 내용은 별지 보고서 참조)

◇김 길 환 의원

- 도선장, 죽교 3구동 시정 감사보고가 있었음 (보고서 별지 참조)

◇이 소 규 의원

- 제4반의 시정 감사의원으로로서 시청 내의 전반적인 통합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정 감사의 결과에 있어서는 개개인 직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 행정에 추진력과 노력하는 점을 보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몇몇 직원으로 하여금 유감된 점이 있습니다.

- 그것은 사무 감사를 하려니까 일체 서류 등을 가져오라고 하면 곧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2,3차의 독촉을 함에도 가져오지 않는 직원이 있어 부득이 감사반 자신들이 찾아가서 서류를 내놓으라 한즉, 그때서야 공금을 다 썼는지 모는 유용하였는지 모르나 취급자가 없다는 등 잠깐 어디 갔다는 등의 구실로서 사무 감사를 회피하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류 등을 가져다가 감사한 결과, 공금을 수백만환, 수천

만환씩을 보고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직원들 중에는 배후에 무슨 과장이 있네, 또는 누가 있네 하여서 신변에는 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사방에서 이러한 행동과 수단으로써 공금을 먹어버리고 또는 유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목포시의 재정은 더더욱 고란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 금반 시정 감사에 부정이 발견된 직원은 완전히 숙청하여야만 우리 시의 행정은 명량하여 질 것이며, 일익 증가하여질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그대로 둬도 무방하리라 사려되오나 이러한 인사 행정은 없애 주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장 하 동 현

- 답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우리시로서 시정 감사의 제출 자료가 불비한 점 미안합니다.

그리고 금반 사무 감사에 관련된 직원으로서 공금을 부정 착복하고 유용한 직원에 대하여서는 변상은 물론이러니와 신분에 있어서도 고려하겠습니다.

-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제가 취임 직후 우리 청원에게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전임자의 사람이네, 또는 낚사람이네 하여서 구별을 가르치지 않고 서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불연이면 1,2명의 양성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바와 여히 인사 이동에 있어서는 정실이 절대로 없습니다.

◇건설과장 남 기 인

- 금반 사무감사에 있어서 특히 건설과에 부정 또는 부정성이 많아서 심히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 공동 하양장 관계에 있어서는 금년 2월 중순경 취임하여서 본즉 매일 시에 들어오는 돈이 일보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 한 달의 예를들면 1일에 실지 수입이 백사십만원이 수입되었는데 일보에는 6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지 증거를 잡고서는 모 직원을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계 수도자재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조사하여서 처단할 것입니다.

- 도시계 수도설계에 대하여서는 조사하여 선처를 하겠습니다.
- 설계외의 금액 징수에 대하여서는 조사하여 처단하겠습니다.

◇(자료미상)

- 의결할 수 있는 우리시의 고유사무는 물론이러니와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이상적인 명백한 행정을 한다면 민주주의 행정은 시·읍·면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시의회에서 지적해서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민을 대표하여 고유사무나, 위임사무나, 직계사무나, 방계적 사무를 막론하고 시장님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병무협회비에 대한 방계적 사무라 할지라도 시장님과 같이 연구와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노무자 부식물, 신체검사비, 군경원호회비 등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히 관심의 태도를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중에는 한 사람도 없는 예를 보면 우리 시의회가 없다고 인증을 하든지 또는 2, 3년이 되도록 의회를 망각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관련이 더욱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리함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약체 행정이 되면 시정도 역시 약체 행정이 되며, 아부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어떠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수시로 움직이고 있어도 투철한 조직력이 마약하고 유기적으로 각자의 단독적인 행동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 시종이 여일하려면 중추의 행동이 완전하고 또한 중추의 부속물이 완전함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시정은 약체의 시정이 안 될 것이면, 중앙에도 전달할 필요의 이상은 아부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또 한가지는 법규와 예규를 무시하고 일하였다는 것인데 인사 행정에 있어서 물론 인재에 곤란한 점도 있지만은 서기가 주사의 자리에 있다는 등 적재 적소의 인사 배치에 다분히 모순성이 있습니다. 상의 하달의 민속을 기하기 위함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 감사에 있어서 보고를 통하여 건설과에 커다란 사고가 있다함은 심히 유감이며, 앞으로 자치행정에 도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지향하는데 법규를 무시하고 아부 행정을 한다는 것은 없애주기 바라며, 지금부터는 의결부와 집행부에서 물셀 틈 없는 행정으로써 모든 애로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정을 바로 잡아 이상적인 행정을 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 호별세 부과 사무에 있어서, 물론 징수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애로도 있지만은 공정한 부과가 제일일 것입니다.

중대한 자료 수습에 있어서는 시에다가 사정위원회를 두고 동에도 사정위원을 두어 주동체는 시의회에 두고 호별세 등급 15등급 이상은 동의 위원회에서 사정하도록 하고 16등 이상은 시의회에서 사정하도록 할 것과 동의 제 징수대장을 동에다 두고 시에다도 1통씩 비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병원에 대하여 우리 시로서 시립병원 하나를 완전히 운영 못한다 함은 유감지사입니다.

도립병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말도 있지만, 안될 말이고 현재 수용되어 있는 환자의 7% 내지 8%가 요구호자으로써 직원들의 생활에 곤란함은 물론이며, 도와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부와 정충하여 약품 등의 수배를 하여 산부인과 등 각 과를 두고 이를 신문 등에 보도하여 주지를 시킴과 아울러서 운영에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영 식당에 관하여 유효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타합하여 주시고, 이운영사항을 본다면 화폐개혁시에 15일간인가 개업하고는 지금은 휴업상태인 모양인데 폐지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를 재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 공동 하양장에 있어서는 운영 방침이 근본부터 조직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사전에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 시유재산에 관하여서는 화장장집을 위시로 20동이라는 시유가옥이 있는 모양인데 현재 시가로 1개월에 40만환의 수입 뿐이라 함은 너무나 억울함에 이를 유효 적당히 하여 가지고 매각한다든가 하여서 청과물 시장을 시운영으로 한다든가 등을 토의하여 주십시오.

- 그 다음 동정강화에 있어서 동사무는 본청과 연락을 신속히 하며, 모든 사무는 어느 동을 가든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본청으로부터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하 생략, 별지 참조)

(오후 1시 45분 폐회)

◇의장 유 정 두

- 4재석의원 12명으로 회의가 성립이 되었기로 개최하겠습니다.

- 오늘 의회는 단기4286(1953)년도 예산심의인데 전반에 걸쳐서 각 분과의 원을 거쳐 내문분과의원회에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양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건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한 예산이고 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요하는 데는 수정되었으며, 행정 당국으로도 원칙상 3월 말일까지 통과하여 주어야 사무를 집행하게 될 것인데 의회 형평상 못되고, 오늘에야 심의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통좌시켜 주어야 예산을 신년도부터 그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신중히 검토하시와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김 남 진 의원

- 국민의 의무인 교육에 대하여 우리 목포시내의 교육세 징수사항을 본다면 현재 제1기분이 45%, 제2기분이 35%의 징수율이라 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교육사무 추진이 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방도로 하여서 국민학교의 운영을 하고 있는가?

- 요즈음 들어보면, 사친회비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여 학교를 못오게 하는 예가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것이 사실인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내 각 국민학교의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것이 사실인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내 각 국민학교의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 감사원은 3명 내지 5명 저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 김남진 의원으로부터 교육청을 위시하여 시내 각 국민학교의 사무 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각 학교의 사무는 위임 사무이며, 교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만은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므로, 조목이 감사할 성질이 되기 때문에 감사반을 2명 내지 5명을 구성하여서 감사하도록 동의

가 있습니다.

-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 남 진 의원

- 감사의 인원은 문교사회위원 7명으로 하되 오늘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가 끝나고 곧 착수하도록 동의합니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문교사회위원 전부 하자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 가라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김 삼 성 의원

- 금년 2월초에 우리 목포에 세궁면 배급이 18,000명분을 수배하고 광주에서 23,600을 배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가 우리 목포보다도 세궁면이 많다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인구로 보더라도 광주 인구는 14만이고, 목포 인구는 11만5천명이 되는데 인구의 차이로 봐서 광주가 목포보다 약 3만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5천여명의 배급을 못 타게 됨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 광주하고 목포하고 비한다면 3만명의 차이가 있는데 광주에는 농가수가 3,500세대에 인구가 24,500명이고 목포의 농가 호수는 608세대에 인구가 4,256명인데 이의 차이만 하더라도 19,440명이고 광주가 더 많으며, 공무원의 수를 보더라도 목포는 9,629명이고, 광주는 38,616명이므로 28,777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궁면만 하더라도 8,221명이 목포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그 중에는 다소의 정실 배급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목포는 현재 전재민, 피난민을 합하여 32,367명이 되는데 현재 수배자가 12,530명, 그 외에 수배치 못한 20,641명은 현재 아사지경에서 지내고 있는 현실이며, 뿐만 아니라 목포의 공장4개소에서 일하는 수가 3,446명인데 9월의 휴업상태로 말미암아 그날 그날 지내기도 곤란한 현실이며,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광주하고 목포하고의 임금의 차이를 본다면 광주가 목포보다도 노임이 1할 내지 2할 정도가 더 많습니다.

- 구체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광주보다 목포가 세공민도 많고 하니 배급을 더 받아오도록 교섭하기 위하여 본 시의회가 끝나면 대표를 선정하여 광주에 파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그 다음에 우리 목포에는 해방 이후 교통, 또는 모든 조건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업계로 말하더라도 사변 전에 비하여서 광주만 못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목포의 모든 상공계 광주에 비하여 차이가 심해지고 있고, 은행의 예금액을 보더라도 광주에는 180여억환인데 목포에는 90억환에 불과하며, 수표 등 전부 합해도 105억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에서는 은행 등에서 상공자금의 융자도 못하고 있어서 대단한 상공계의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목포에서는 염전 자금, 특수자금 외에는 15억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시민이 1년간에 부담하는 세율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보아 목포의 상공계들이 몇 사람이 되지 않는 지방에서는 돈을 벌수 없고, 가서 돈을 벌자면 사바사바가 필요하여 다소의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져오는 돈은 적으므로 상공도시 목포는 후퇴하고 맙니다.

따라서 어떤 상세한 점을 사세당국에 건의하여 영업세, 호별세를 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사세청에 교섭하고 건의하기 위하여 2명을 선출하여 파견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교섭위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 김삼성 의원으로부터 세공민의 구호 대책과 상공계의 자금관계 등을 각각 관계당국에 건의하기 위하여 2명의 교섭위원을 선정 파견하자는

- 재청, 3청, 4청, 5청으로써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 교섭위원 2명은 김삼성, 박찬규 의원 2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재 흥 의원

- 단기4286(1953)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금년도의 개정예산을 먼저 심

의합시다.

◇의장 유 정 두

- 개정예산하고 단기4286(1953)년도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명칭은 개정예산이라 할지라도 결의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 순서는 그런 것도 같지만 지방자치법을 본다면 예산은 3월 말일까지는 통과시켜 주어야 행정부가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오늘은 통과해야 합니다.

- 이하 장내 소란 생략함.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하여 주십시오.

◇시장 하 동 현

- 원고지참 시정연설 하였음. (생략)

◇의장 유 정 두

- 시장님의 시정연설로 잘 알았음 줄도 사료되온 바 지금부터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십시오.

◇이 재 흥 의원

-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잘 알았습니다마는 내무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듣기로 합시다.

◇의장 유 정 두

- 별지 예산안과 여히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하여 내무분과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그대로 통과하였는데 조건부로소 남교동 수도공사를 먼저할 것과 도선장 1일간의 실지 기계유 등의 소모 실적을 보기 위하여 김팔용 의원, 명남철 의원과 시직원 1인과 3인이 실지 조사하여 가감하기로 하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제15회 목포시의회 제2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1) 참석의원:19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임일남, 김팔용,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의원

2) 불참의원:2명

진복춘, 김채용 의원

4. 의사일정:

1) 부의안건:

(1)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각종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

(2) 제2회 시정감사 보고의 건

2) 보고사항:

(1) 제15회 임시회의 제1차 회의록

(2) 특별위원회 경위보고(어업조합 조정관계)

5.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0시 20분)

◇서기 박 찬 대

- 제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음.

◎ 어업조합의 조정관계 경위보고

◇이 소 규 의원

- 어업조합측의 포섭안과 객주측의 건의안을 별지와 여히 보고한바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 교섭위원회에게만 맡기면 안되니 앞으로 15일간의 여유를 주어 해결이 안되면 의원의 동의대로 도당국과 교섭을 계속토록 하자.

◇김 남 진 의원

- 위원께서 교섭을 계속해서 할 것과 각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자.

◇간사 조 운 응

- 별지 판초자공장 설치에 대한 강선명씨의 서신 및 삼학도 매축공사에 대한 중앙건의경위의 건에 관한 임기봉의원의 서신을 낭독

◇김 영 완 의원

- 판초공장 설치추진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1명, 번영회에서 1명하고 2명이 즉시 상부하여 해결지어 가지고 오도록 하자 동의

◇이 소 규 의원

- 막연히 상부하는 것보다 부지 후보지를 정하여 가지고 상부할 것을 동의에 참가

◇의장 유 정 두

- 동의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참가가 되지 않음

◇이 소 규 의원

- 서면으로 하여도 10일간이면 충분히 회답을 받아볼 수 있고, 1차 내왕하려면 수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니 막연히 상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등으로 1주일 이상 걸릴 것이고 그간 연락하면 10일 이내에 회답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서면으로 조회할 것을 개의회하다.

- 재청이 있었다.

◇의장 유 정 두

- 개의부터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8명 중 가 10으로 가결

◎ 제2회 시정감사 보고의 건

◇의장 유 정 두

- 1반부터 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음

◇이 재 흥 의원

- 별지 감사 보고서에 의하여 총무과 서무계, 공보계, 일반회계, 죽교동1구, 무안동의 감사 보고가 있었음(내용 생략)

◇김 영 완 의원

- 별지 보고서에 의하여 수특회계 감사 보고가 있었음

◇오 세 일 의원

- 별지 보고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감사에 대한 보충보고가 있었음. (속기록 참조)

◇이 복 주 의원

- 별지 보고서에 의하여 총무과 시정계, 식량특별회계, 호남동, 대성동 1구의 감사 보고가 있었음

◇박 찬 규 의원

- 동정특별회계, 재무과 부과계, 징수계 감사 보고가 있었음

- 행정부의 답변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장 및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

이 있었음(내용 생략, 속기록 참조)

◇의장 유 정 두

- 휴회 선언하다. (오후 1시간 20분)

- 속회 선언하다. (오후 2시간 30분)

- 제2반부터 감사 보고가 있겠음.

◇정 응 표 의원

- 별지 감사 보고서에 의하여 사회계, 노동계, 보건계, 시립병원, 대성병원, 구호진료소, 시영식당, 금동배급소, 대안동배급소의 감사보고가 있었음.

◇김 남 진 의원

- 군경원호, 만호동 감사 보고가 있었음.

◇명 남 철 의원

- 산정동 1구, 죽교동 2구, 동명동, 산정 3구, 청소사업소 감사 보고가 있었음.

- 행정부의 답변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산업과장,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음(내용 속기록 참조)

◇정 응 표 의원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의장 유 정 두

- 산회 선언하다. (오후 5시 10분)

- 회의록 서명에 김영완, 명남철 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3월 30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김 영 완

” :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15회 목포시의회 제3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3월 31일 오전 10시 2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1) 참석의원:17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이재홍, 김남진, 임일남, 김경현,
문택호, 진복춘, 김팔용,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박찬규, 김자홍 의원

2) 불참의원:4명

김경희, 김채용, 오세일, 김영완 의원

4. 부의안건

1) 제2회 시정감사 보고의 건

5.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0시 20분)

◇의장 유 정 두

- 제3반부터 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음

◇김 삼 성 의원

- 별지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양정계, 상공계, 공설시장, 축산, 산림조합, 대성동배급소, 북교동, 영해동, 용당동, 산정동 2구, 대성동2구, 유달동, 온금동의 감사보고가 있었음.

◇진 복 춘 의원

- 별지 내용과 여히 3반감사 보충 설명이 있었음.

- 행정부의 답변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음.(속기록 참조)

◇의장 유 정 두

- 제4반의 감사 보고가 있겠음.

◇임 일 남 의원

- 별지 감사 보고서에 의하여 공동하양장, 양동, 서산동, 죽교동 1구, 병사계의 감사 보고가 있었음.

◇김 자 흥 의원

- 관리계, 도시계, 죽교동 4구, 죽교동 5구의 감사 보고가 있었음.

◇김 길 환 의원

- 용당 도선장, 죽동, 죽교동 3구의 감사 보고가 있었음.

◇이 소 류 의원

- 제4반의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었음.(내용 생략, 속기록 참조)

- 행정부의 답변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장,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음(내용 생략, 속기록 참조)

◇의장 유 정 두

- 시정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었음.

요지: 1. 관치행정의 완전한 탈을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자치행정

2. 계획성이 없고 아부적인 행정을 법규와 예규를 무시한 적당한 행정 등

- 회의록 서명에 의원을 지명

- 산회 선언하다.

(오후 2시 3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3월 31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김 삼 성

” : 김 길 환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15회 목포시의회 제4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4월 1일 오전 10시 4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1) 참석의원:18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경현,

문택호, 김팔용,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의원

2) 불참의원:3명

김채용, 오세일, 김영완 의원

4. 부의안건:

1)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수특회계, 식특회계, 동특회계 세입
세출 예산 심의 건

2) 단기4285(1952)년도 일반회계, 수특회계, 식특회계, 동특회계 경쟁예산 심
의 건

3) 단기4286(1953)년도에 적용할 목포시 시세율 결정의 건

5.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0시 40분)

6. 토의사항

◇김 남 진 의원

- 3인 내지 5인으로 특별 감사반을 조직하여 교육청과 각 국민학교에 대해
감사할 것을 긴급동의(재청, 3청) 전원가결

◇의장 유 정 두

- 감사반원 선정방법과 실시 일자를 말씀해 주기 바람

◇김 남 진 의원

- 의장이 지명할 것과 4월 4일부터 할 것

◇의장 유 정 두

-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자(전원 찬성)

◇김 삼 성 의원

- 시민의 생활 수준과 경제력이 광주보다 훨씬 못한 목포시의 실정에 비추어 응분한 식량 배정과 사세 행정을 하도록 영업세, 소득세의 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2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사세청과 도당국에 건의할 것을 긴급 동의(재청, 3청)(교섭위원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겠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8명 전원 가결
- 교섭위원에 김삼성, 박찬규, 이문길 의원을 지명 선정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각 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

◇시장 하 동 현

- 단기4286(1953)년도 시정방침에 대한 시정 연설이 있었음(약10분간, 생략)

◇의장 유 정 두

-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기 바람
- 질의응답 약 10분간 있었음(생략)

◇김 삼 성 의원

- C. A. C에서 오신 손님을 안내하여 파괴된 공장이나 세공민의 실태를 시찰한다 하니 의회에서 안내자로서 대표 1명을 파견할 것을 긴급동의(재청, 3청)

◇정 응 표 의원

- 문교사회위원회에 관련된 문제이니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1명, 산업위원회에서 1명으로 하자 동의에 참가(수락)

◇의장 유 정 두

- 김삼성, 문택호 의원을 지명 선정

- 김삼성, 문택호 의원 퇴장

- 시정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 항, 목별로 설명이 있었음(약 30분간)

◇의장 유 정 두

- 휴회 선언하다.

(오후 1시 10분)

- 속회 선언하다.

(오후 2시 30분)

◇이 재 흥 의원

- 각 분과위원회에서나 내무위원회에서 약 1주일간을 심의했으니 신년도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다.

◇임 일 남 의원

- 일반회계 사무비에 쫓차 구입이 계산되어 있는데, 시민의 실정을 참작해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세입을 될 수 있는대로 감하기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계속하자 개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명 남 철 의원

- 세출 4관 6항 1목 연료대(용당 도선장)를 설치 수용하는 수량을 계산하면 절반 삭감해도 좋으니 삭감할 것을 동의

◇의장 유 정 두

- 연료대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의 경비를 내지 않도록 설치 답사 할 것과 남교동 하수사류 신설 공사를 먼저할 것을 조건으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통과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7명 중 가 13, 부 1, 원안 가결

◎ 단기4285(1952)년도 일반회계, 각 특회계 경정예산의 건

◇이 재 흥 의원

- 본 개정안은 사무 감사시 나타난 세입 결합된 것과 앞으로 1주일내에 쓴 돈을 받아들인 후 차기 의회에 상정할 것에 조건부로 보류할 것을 보류하자 동의(6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5명 중 전원 가결

◎ 고 경사 류재필 시민장 거행의 건

◇김 삼 성 의원

- 타 시군에 비해 처음이고 전시 정신을 양양하고 전력에 주력하기 위하여 시민장으로 거행함이 좋겠다.

◇이 소 규 의원

- 장례 절차는 사무국에 일임하고 준비위원으로 의원으로 하자(전원 찬성으로 결정)

◇이 복 주 의원

- 춘궁기 타개책으로 산업과에서 맥강배급을 실시하였는데, 수배해 보니 과거 가축용 사료보다도 훨씬 나쁜 대맥강을 배급주어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되어 있다.

◇진 복 춘 의원

- 산업분과위원회 일임하여 업자를 조사하자 동의(재청 가결)

◎ 일시 차입금 승인의 건

◇김 삼 성 의원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에 있어 표결결과 가결되다.

◇김 삼 성 의원

- C. A. C 사절단 안내상황 보고가 있었음(속기록 참조)

◎ 단기4286(1953)년도에 적용할 목포시 세율결정의 건

◇김 삼 성 의원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이 있어 표결결과 가결되다.

◇이 재 흥 의원

- 내 4월 10일 본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고 폐회할 것을 동의(재청)가 결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서명에 진복춘, 명남철 의원을 지명

7. 폐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후 5시 20분)

1) 폐 회 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4월 1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진 복 춘

” :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